



즉시 배포용: 2017 년 4 월 27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빙엄턴 신규 구세군 (SALVATION ARMY) 직업 교육 센터 착공 발표

직업 기술 개발, 교육 프로그램 및 현장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600 만 달러 규모의 시설

**이번 투자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이 지역의 성공적인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청사진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프로젝트를 보완**

구세군 직업 교육 센터 렌더링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빙엄턴시 구세군이 신규 북부 직업 훈련 및 지원 센터 건설 작업에 착수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600 만 달러 규모의 이 신규 센터는 최대 40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유능한 근로자를 유치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며 혁신을 주도할 지역 경제 청사진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구세군은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을 지원해 왔으며, 신규 빙엄턴 센터에서 직업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빙엄턴 거주자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튼튼하고 건강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희망과 자원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 남성과 여성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기공식에 참석한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구세군의 교육 센터 확장 프로젝트는 빙엄턴 북부의 미래에 560 만 달러를 투자한 것입니다. 이는 일일 서비스의 개선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인력 개발 지원을 의미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REDC) 의장으로서, 서던 티어 REDC 가 서던 티어 부흥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Southern Tier Soaring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 Plan)의 일환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킬 프로젝트에 170 만 달러 투자를 확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세군은 지역 교육 기관과 협업하여 이 지역 전역의 남성 및 여성에게 직업 기술 개발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신규 인력 교육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신규 센터는 육아 및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일자리 창출의 대가로 최대 170 만 달러의 주도 지역 교부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총 프로젝트 비용은 600 만 달러에 달합니다. 신규 센터는 2018 년 여름 완공될 예정입니다.

빙엄턴 구세군 주도 지역 캠페인 책임자 Laura Hamilto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세군 신규 시설은 만성적인 경제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빙엄턴 북부 지역을 재건하여 계층 이동의 기회와 개인의 자율권을 신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 파트너와 협업하여 혁신적 경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였으며, 빙엄턴뿐만 아니라 브룸 카운티 전역에서 굶주림, 실업 및 빈곤을 극복하려는 개인과 가정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의장, CEO 이자 **커미셔너인 Howard Zemsk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군의 신규 북부 직업 교육 및 지원 센터는 수많은 빙엄턴 지역 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며, 서던 티어 전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서던 티어 REDC 부의장 Tom Tranter, Corning Enterprises 의장 및 CEO 이자 **빙엄턴 대학교(Binghamton University) 학장 Harvey Steng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TREDC (Southern Tie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는 신규 빙엄턴 구세군 직업 교육 및 지원 센터를 지원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빈곤의 뿌리를 뽑는 것은 이 지역의 “서던 티어 부흥 프로젝트(Southern Tier Soaring Initiative)” 최우선 사항 중 하나이며, 이 혁신적 파트너십이 우리의 사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뉴욕주 상원의원 Fred Aksha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려 온 구세군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센터는 빙엄턴 북부 지역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인근의 새로 확장된 리 바타 커뮤니티 센터(Lee Barta Community Center)와 함께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여 도움이 절박한 수많은 북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고 빙엄턴 지역 활성화에 또 한 걸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Donna Lupardo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회복 및 빈곤 퇴치 사업의 핵심입니다. 구세군 북부 직업 교육 센터는 지난 수년 동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온 지역에 건설됩니다. 한 곳에서 주민들을 위한 중요 훈련, 교육 및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설은 활동의 중심지이자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빙엄턴시 시장 Rich David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군은 우리 지역사회를 지원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가장 어려운 빙엄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신규 북부 직업 교육 및 지원 센터로 그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을 지원해 주신 Cuomo 주지사 와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에 감사드리며, 내년 여름 센터 개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미국 전역 커뮤니티 내 7,546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활동에는 식량 배급 이니셔티브, 재난 구호, 재활 센터, 인신매매 방지 및 수많은 아동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빙엄턴 구세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세요.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서던 티어 지역의 종합적 발전 계획인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이 사업은 혁신, 활발한 비즈니스 성장, 해당 지역 최고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첨단 제조, 식량, 농업과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빙엄턴의 혁신 생태계를 더욱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는 이 계획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이미 2012년부터 이 지역에 31 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시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졌고, 기업들은 빙엄턴(Binghamton), 존슨시티(Johnson City), 코닝(Corning) 등을 성장과 투자를 도모할 지역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5억 달러 규모의 “서던 티어 부흥 (Southern Tier Soaring)”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 (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은 민간 기업들이 25억 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제출된 이 지역의 계획에서는 최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